#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 성모기 시 12





## 12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MILITIA IMMACULATAE

- 예수 성탄 대축일 *02*
- 성 프란치스코의 성체 공경 05
  - 막시밀리안 콜베와 교회 08
- 회식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여정 13
  - 주님을 그리며 17
    - 말씀무상 18
  -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밤하늘에 뜬 별 김민석
    - 호주멜버른에가다 33
    - 양평에서 눈치우며 38
      - 몸의 내공(內功) 43
    - 함께하는 이모저모 50

주님 탄생 예고 "때가 차자" (일라44)



그림: 진동길 마리오 신부

## 예수 성탄 대축일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꼰벤뚜알 프 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

이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이브의 감미로 움, 공휴일로 편히 쉴 수 있는 날 등등. 그러나 이것들이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날이 무엇이기에 교회는 매년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인지요….

성탄 새벽 미사 1독서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 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서서 온다" (이사 62 11)

'구원이 다가온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여 돌아갔다." (루카 2,16,20)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기쁨에 넘쳐 하느님을 찬미찬 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면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소리 높여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을 찾기 위해 2독서를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티토 3.5.7)

'우리를 구워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들은 이 기대로 가슴이 벅차 하느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 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 즉 하 느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성체로 우리 각자에게 직접 오십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목동들보다 더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 소리 높여 찬미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 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의지로 거부하지 않는 한, 주님 과 함께 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고, 하늘나라 즉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미사에 함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사로 힘들고 지치셨더라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 님을 모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세상을 구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성탄 대축일 새벽 미사 영성체송)



꼰벤뚜알 프라치스코 수도회 신부

## 성 프란치스코의 성체 공경

#### 김성학 사무엘

그동안 성 프란치스코의 성체 공경과 성체 공경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신비에 대해 살펴봤다. 성체께 대한 신심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체 안에 그리스도 께서 참으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계심을 다시금 믿고 고백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대희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교회 임무의핵심으로 삼았다. 교황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놀라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중요한 사목적 지침을 제시한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이러한 진리는 일상적인 신앙 경험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비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 성체 성사를 통하여 이러한 현존을 매우강렬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 교회의 눈길은 언제나 제대의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향하며, 그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남을 발견합니다." (1항)

성 프란치스코의 성체 공경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또 오늘날 성체 공경의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혁신적이거나 유별난 것이 없다. 성 프란치스코는 성경-기록된 '말씀'-과 교 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체에 대해 지 녔던 그의 열성적인 사랑은 회개의 생활, 가난의 생활, 복음적 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인간은 하느님을 받아 모시고, 하느님은 또한 우리를 받으신다. 바로 이러한 완전한 일치에서, 하느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치 신비에서 우리들의 회개생활이 시작되고 완성된다. 즉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비우는 소유없는 가난의 생활,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회개의 생활이 매일매일 성체를 통해 새로워지며 쇄신되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를 둔 그의 신심은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과거의 사건과 미래를 향해 전체적으로 보도록 이끌어 주었다. 프란치스코의 성체(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말과 글을 보면 누구라도 그가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사도들이 예수의 인성의 베일을 통하여 그분의 신성을 보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성체 성사의 베일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실존을 보고 또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인물로서 당신의 사도들과 생활하셨 던 것 같이, 지금 그분은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체의 현존 안에서 우리 가유데 살아계신다

구원과 저주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달려 있듯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성체 안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며 동 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과 사 랑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체와 함께 성체를 위하여 성체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 여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살던 시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와 다가올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성체 공경의 교훈이다.

이 시대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사조가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극도의 합리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그것이다. 인간 지성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합리주의는 종교를 단순히 감상적 차원으로 격하시키고, 성사를 단순히 종교적 상징 정도로 파악하게 한다.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극도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하여 인간성은 급속히 말살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는 증오와 분열과 퇴폐가 만연하다.

현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쇄신되어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신비를 올바로 인식하여 '육화', '십자가' 그리고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합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사랑과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임을 나타내는 것이 성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부산 기장성당 주임

#### 막시밀리안 콜베와 교회

#### 최문기 마티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생물학적 특징들을 통해서 그 종을 구별할 수 있다. 물론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인간 육신의 고유한 특성들은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인간을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는 확실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기준만으로 인간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생명체"로 창조하셨다. 이렇듯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영혼과 육신의 합일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인간다움'과 영혼의 '인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과 완전히 일치하는 육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다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콜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 위에 세우시고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반석 위의 교회'야 말로 참다운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확신하였다. 하지 만 교회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실재이 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특성만으로는 교회를 알아 볼 수는 있어 도 완전하게 정의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빚으셨듯이 예수께서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듯이 예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5)는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만드셨다.

'반석 위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양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예수 그리 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세상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하느님의 뜻에 역행하는 세상의 불순명 속에서 진리와 복음을 간직한 방주로서 스스로의 존재 를 실현할 때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콜베 신부는 이 존재 실현의 노력을 '성화'(santificazione)라고 부르며,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함(santità)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려는 모든 의도와 노력 그리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속에 현존하는 '반석 위의 교회(La Chiesa fondata sulla roccia)'인 동시에 하느님의 뜻을 실 천하는 '거룩한 교회(La Chiesa santa)' 이어야만 한다.

콜베 신부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이다. 사실 모든 인간은 창조 되었을 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상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아간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거룩함을 향한 인간의 여정 위에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과 긴밀히 결합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만사의 첫 번째 원동자로서 인간의 모든 활동과 결합하시며, 인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적합한 상황과 환경을 창조하신다.

콜베 신부는 교회의 본질이 하느님의 뜻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의 신성한 뜻을 완수하는 데에 있음을 명백히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십자가의 표정과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도우 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느님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중재하기 때문 에, 인간은 교회 안에서 보다 빠르고 오류 없이 거룩함에 이르며 완전함을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본질적 '거룩함'을 상실하였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 거룩함에 닿을 수 없는 귀양살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사람"(마태 5,48)이 되기를 요청하시고, 사도들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참조 1베드 1,15), 세상의 거센 역류 한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느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간직하고 증거하며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는 성모님을 통해서 인간 피조물이 성령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치를 계시한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은 '거룩함'의 완전한 성취이며 동시에 그 거룩함의 근원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성모님을 '티 없으신 분' 혹은 '죄의 오염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로 고백하는 것이다.

콜베 신부는 자신의 마지막 수난을 앞둔 1940년 12월 1일, 교회를 향한 지극한 신뢰 안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영혼의 회개와 성화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주님 의 신성한 은총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어떤 말도, 어떤 인쇄물도, 어떤 외적인 수단들도 모두 무의미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은총은 오로지 크고 작은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고행과 충실함을 동반한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설수록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신성한 은총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자신의 기도는 쉽고 충만하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에포칼라누프의 가치는 오로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기도의 삶과 내적인 삶, 우리의 인성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콜베 신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응답하며 다가서는 것이야 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인 거룩함은 부르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 공동체의 의미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으며, 교회 안에 모여든 모든 이들이 스스로가 참회와 정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로서 현존할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한 스테파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찬미받으소서〉반포 2주년을 맞아 회칙의 가르침과 정신이 가톨릭 교회와 세상 안에 더욱 널리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의 사무총장 토마스 인수아(Tomás Insua)의글 "회칙〈찬미받으소서〉의 실천 (BRINGING LAUDATO SI'TO LIFE)"을 소개합니다. 1

#### 공공의 차원에서 〈찬미받으소서〉를 생활화하기(2)

공공 캠페인들은 특정한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을 정책 입안 자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앞서서 몇몇 가톨릭 원조기구들이 유럽에서 선도했던 기후 정의를 위한 순례(The Pilgrimage for Climate Justice)와 같은 창조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국제가톨릭기후운동과 몇몇 회원 단체들은 새로운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여러 언론 매체에 〈찬미받으소서〉에 관 한 칼럼을 기고하기 위해 많은 주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습 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더 많은 주교님들의 기고문을 싣기 위한

13

<sup>&</sup>lt;sup>주1)</sup>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

공동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찬미받으소서〉165항) 화석연료를 대체하라는 〈찬미받으소서〉의 촉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많은 가톨릭단체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투자 철회-재투자 운동(The Divest-Reinvest cause)의 가장 확실한 토대는 주교님들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 보내는 호소(Appeal to COP21)'에서 비롯됩니다. 그 호소문은 정부들이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있으며 안전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를 모두에게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sup>2</sup>

2016년 6월 몇몇 가톨릭 단체들의 공동 투자 철회 발표를 칭송하면서 제프리 삭스 교수는 "투자 철회는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기업들은 인류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안전한 저탄소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전략들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에너지로 자본투자를 전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세계가 파리기후협약을 성취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돕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sup>3</sup>

주의 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Appeal to COP21 Negotiating Parties', October 2015,

平3)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jeffrey-sachs-divestment/

턱슨 추기경님께서 화석연료 투자철회 운동이 〈찬미받으소서〉 가 촉구했던 논리, 즉 공동선을 위해 기업들에 사회적 압력을 가 하는 것과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고 언급하셨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sup>4</sup> 국제가톨릭기후운동과 몇몇 회원 단체들은 더 많은 기관들이 세계교회협의회와 루터교 세계 연맹과 같은 다른 주 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의 모범을 따라 가까운 미래에 투자를 철 회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치면서

〈찬미받으소서〉는 전 세계의 가톨릭 공동체 안에 피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행동을 놀랄 만큼 촉발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이게도 정치 · 경제적 엘리트들은 여전히 평상 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교회는 기후 정의의 추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기관들이 기후 위기의 세 가지 측면, 곧 영성, 생활방식, 그리고 공공의 측면에서 〈찬미받으소 서〉를 의욕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에서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신앙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가톨릭 공동체는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resentation of the Message of Pope Francis, "Show Mercy to our Common Home" for the celebration of the World Day of Prayer for the Care of Creation, 1 September 2016.

교황님의 최근 메시지 〈우리 공동의 집에 자비를 보여주기〉 는 자비의 활동에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앞으로의 쉽지 않은 여정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호주가톨릭대학교에서 생태신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 주님을 그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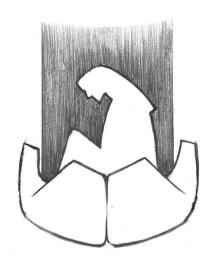
**박영철** 요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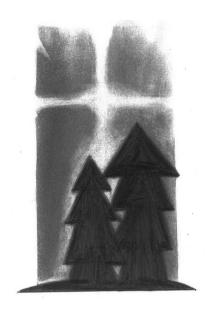
방 그림자가 짙어 오는
한적한 성당에
살포시 다가가 자리한다.
하는에는 적막이 밀려오고
차디찬 바람 불어와
삭막함이 업습해 와도
가로등 불빛 아래
너와 나의 눈 마주침.
우리의 사랑은
내일의 희망의 포구로 발산한다.

#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복음환호송)





"오늘 우리 위에 빛이 비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셨네." (예수 성탄 대축일 화답송)

####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밤하늘에 뜬 별 -

**김민석** 안젤로

깊은 밤하늘 숲속, 닿을 수 없는 길 그저 희미한 빛으로, 어린 내 눈을 비추네.

무리한 꿈의 타끌, 숨 쉴 수 없는 길 그저 희미한 빛으로, 슬픈 내 눈물 달래네.

어쩌면 살아가는 건, 영원히 깨울 수 없는 수많은 꿈들의 소리 없는 어울림일지도 몰라.

어쩌면 살아가는 건, 영원히 잠들지 않는 수많은 별들의 끊임없는 인형 놀이일지 몰라.

깊은 밤하늘 약속, 돌아올 수 없는 길 그저 희미한 빛으로 지친 내 영혼 달래네.

- 나윤선 노래. {그리고 별이 되다}

인도로 출발하기 열흘 전, 나는 담당 수사님에게 1년짜리 인도 여행 비자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말만 듣고 무작정인도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그곳 직원들이 하는 말이 인도 여행비자를 1년씩이나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힌두교 국

가인 인도에서 가톨릭 수도자인 나의 입국을 반겨줄 리 없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도 인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종교 분쟁들뿐, 비자 심사관은 오히려 나에게 종교적 색채가 강한 활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 최종 인터뷰 자리에서 담당관은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인도 여행은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6개월 비자를 주려고 도장을 찍으려 하는데, 순간 내 반사 신경이 작용하여 그의 손을 움켜잡고 Please~ Please~를 연발하며, 되지도 않는 영어로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튀어나왔다.

"저는 인도 전 지역의 음식을 다 체험하고,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1년 비자를 내주세요! 나중에 만약 책을 쓰게된다면 꼭 선물로 드릴게요!"

어쩌다가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내가 좀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 담당관은 날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동안 고민하더니 마침내 힘든 결정을 내렸다. 한 번 더 나에게 종교적인 활동에 참가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피식 웃으며 1년 여행 비자를 내준 것이다. 나는 땡큐를 연발했다. 드디어 인도에 갈 수 있겠구나! 그날의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다. 내 마음은 벌써 인도에 가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 인도로 떠나는 날 새벽, 서울 한남동 수도원 방을 정리하면서 다섯 달 동안 정들었던 방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사실 그동안 이 방문을 열고 나가 인도로 가는 상상을 아주 많이 했었다. 이제 진짜로 저 문을 열고 나가야 할 시간이 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본 후, 한가득 심호흡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곧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예상대로 방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담당 수사님이 전자기기와 돈을 일체 들고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흔하고 흔한 손목시계조차 가져갈 수 없었고, 아주 적은 양의 비상금도 들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언제나 시계를 찾아다니기 바빴고,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해서 인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여섯 시간 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쫄쫄 굶어야 했다. 얼마나 배고 프고 서럽던지, 꼭 국제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공항 복도에 비치된 식수로 배를 채운 후, 눈을 감고, 인도에 도착해서 맛있는 인도 카레를 실컷 먹는 명상에 빠졌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도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거짓말처럼 흘렀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맨 처음 인도에 왔을 때 머물렀던 관구 본부 손님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어찌 된 일인가?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나

서야 비로서 지금 내가 이곳 인도 관구 본부에 와서 인도에서의 마지막 열흘을 보내고 있음을 자각했다. 정말 꿈만 같이 느껴지 는 1년이었다. 이제 공식적인 인도 체험은 모두 끝났다. 이제 열 흘 동안 몸과 마음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관구 본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는 상상을 하며 그리운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한국으로 가는 날짜를 받아놓으니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콜베 수도원(대신학원 공동체)에서의 삶과 그곳 형제들의 얼굴이 하나씩 가슴속에 떠올랐다. 내가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형제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해줄 수 있었는데… 더 겸손할 수 있었는데… 남는 건 아쉬움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나는, 온몸으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꼈다.

인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내가 대수도원을 가로지르던 그때 정전이 되어 볼 수 있었던 인도 밤하늘에 뜬 무수한 별들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별을 보는 것은 난생처음이었다. 반 짝반짝 나에게 속삭이며 말을 걸어오는 듯, 나는 정신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별들을 헤아려 나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기 시작한 것이 벌써 500개가 넘었다. 나는 이렇게 한 시간이 넘도록 하늘 별 바다에 빠져 있었다. 하늘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봐서 그런지 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면서 통증이 왔다.

나는 순간 알아차렸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는 것을.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고, 곧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심코 내가 지나쳤던 소중한 많은 것, 내가 잊고 살았던 아련한 추억들이 내 가슴속에 하나씩 하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가득 쌓인 못난 허물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인도생활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다.

"주님께서는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 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프란치스코는 유언을 통해, 회개 생활의 시작이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어쩌면 나도 이곳 인도에서 나의 한계에 여러 번 부딪히면서 주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1년간의 인도생활은 내 몸에 들어가 있던 불필요한 힘을 빼게 했고, 내 고집을 꺾었으며, 내 몸무게도 11kg씩이나 가져갔다.

그리고 인도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인도는 나를 찾아 나서게 했고, 삶을 돌아보게 했으며, 언제든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제2의 고향, 인도를 선물로 주었다.

"민석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인도로 출발하기 전, 한 선배 수사님이 내게 해준 이 말은 늘 내 인도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속으로이렇게 되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 열흘 동안 인도 관구 본부에 머물면서 두 순교자 이야기가 실린 작은 책자, "Loving to the point of giving your life"(내 삶을 줄만큼 사랑하기)를 발견했다. 이것은 우리 수도회 폴란드 출신 수사님인 Michal Tomaszek 신부님과 Zbigniew Strzalkowski 신부님의 순교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다.

두 수사님은 페루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지 약 2년이 되는 1991년 8월 9일, 안데스산맥에 있는 Pariacoto 라는 마을에서 테러범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Michal 신부님은 목에 한발, Zbigniew 신부님은 머리와 등에 각각 한발씩 총에 맞으시고 순교하셨다.

테러범들의 총에 의해 돌아가시기 직전, 두 수사님은 함께 살고 있던 3명의 청원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 셨다.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테러범들에게 말했다

"우리 신부들은 여기에 있소! 그러니 다른 젊은 사람들은 헤

치지 마시오!"

그때 나이는 Michal 신부님이 31세, Zbigniew 신부님이 33세였다. 두 수사님은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하느님 품으로 가셨다. 두 분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 줄만큼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 아우슈비츠의 순교자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성인처럼 사랑했다

"친구를 위하여 <del>목숨을</del>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15,13)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Zbigniew 수사님을 "우리들의 작은 의사"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신 것처럼, 그도 가난하고 소외된 병자들을 찾아서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Michal 수사님은 특별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사 랑을 받았다. 음악이라는 수사님의 큰 재능을 통해서 아이들을 늘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수사님이 가 르쳐 준 노래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수사님을 위해 만든 찬 미가와 감사의 기도 노래는 아직까지도 Pariacoto에서 울려 퍼 지고 있다.

인도에서의 마지막 열흘을 보낸 후, 2015년 12월 1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벌벌 떨며 추위와 싸워야 했다. 공항에서 한남동 수도원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고 또 어찌나 춥던지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보다도더 길게 느껴졌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당연하다. 12월에 반팔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한남역에 내려서 육교를 건너면서 칼바람을 맞는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한 나라 인도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남동 수도원에 도착했다. 나는 수사님들께 인사를 드린후, 1층 손님방으로 들어가 아주 달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12월 4일, 인도 관구 본부에서 작은 책자로만 보았던 순교한 두 분의 수사님들은 복자가 되셨다.

그 작은 책을 쓴 수사님도 순교한 두 수사님과 함께 페루에 선교를 갔었다. 하지만 두 수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는 Pariacoto에 있지 않았다. 폴란드에 일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테러범들이 습격했고, 이 슬픈 소식을 그는 폴란드에서 TV로들어야만 했다.

두 수사님이 순교하기 며칠 전, 그는 둘에게 물었다.

"혹시 이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한 수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응답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우 리를 여기에 묻어주십시오"

1991년 8월 9일 하느님 나라로 가신 두 분 수사님의 순교 이야기는 나의 인도 생활 전체를 정리해주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기억한다. 그 빛나는 별들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도 저 별처럼 되라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이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라고, 끝내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착한 순교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두 순교자, Michal Tomaszek 신부님과 Zbigniew Strzalkowski 신부님

그동안 제 부족한 '인도에서 수도생활하기'를 읽어주신 많은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글을 쓰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글재주가 없어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글이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체험, 인도체험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의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난생처음 내가 쓴 글이 어딘가에 실린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어느 책자에서 이런 글을 보 았습니다. "인도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 한번 가 보게 되면 그 매력에 빠져 다시금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 가 바로 인도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인도 아이들의 맑다 맑은 눈망울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을 끝내 못 잊어 인도를 다시 찾 게되는 것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도를 체험하고 글을 썼지만 비슷한 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인도이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인도를 솔직히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도도 딱 그만큼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반성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이며 그곳에서 생활하였는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얼마나 간절히 수도자의 길을 가기 에 합당한 자 되려고 노력하였는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였는가?

저에게 인도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준 신성한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도 형제들을 통해서, 또한 그곳에서 겪었던 많은 일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이 수도생활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선배 수사님들, 그리고 강화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형제 수사님께도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선교 후원회원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도에서의 기억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착한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수도생활 해나가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

를, 그리고 2018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그리고 영육간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처음 써본 시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느님나라

나는 '하느님 나라'에 산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 산다.

내가 왕이고, 홀로 선이며 진리였던 '내 나라'…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던,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던 '내 나라'를 떠나 '하느님 나라'에 산다.

어제 밤 내 꿈속에 나타난 한 거지 그가 내게 건내준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 그 안에 담겨 있던 '하느님 나라'

까만 얼굴, 맑고 깊은 눈동자의 소년이 입가에 머금은 미소로 내게 가르쳐 준 '하느님 나라'

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그 향기를 잊을 수 없어, 나 이제 '내 나라'를 떠나 '하느님 나라'에 산다.

누구든 가장 낮은 종이 되고, 가장 업신여김 받게 되는 '하느님 나라'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온전히 소유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느님'

'하느님'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 제일가는 비밀.

나는 '하느님 나라'에 산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에 산다.

####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욱 다윗

수도 생활을 배웠던 강화 수도원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인천신학교 입학시험을 치기 위해서 처음 강화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2002년 당시에 곰과 사자처럼생긴 차우차우 2마리가 있었는데, 어찌나 귀엽고 매력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들 하늘정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겠죠?

지금 살고 있는 멜버른 성 요셉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이 수도원에서는 7살 먹은 고양이 '로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정방문을 했을 때, 고양이가 있는 집을 보긴 했지만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도 집 안에서 들이는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설레었습니다.

로지는 처음부터 저를 허락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야? 새로 온 집사인가?' 한 번 쓱 쳐다보고는 요새 말로 '쿨'하게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 도도함과 시크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강아지처럼 누구에게나 친절했다면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쿨내 진동하는 로지는 성격과는 반대로 몸에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역시 그녀와 친해지는 방법은 조공이었습니다. 현시대의 동물들에게 필수인 다이어트 중이었던 로지는 저녁 5시 습식

이후에는 건식사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고양이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밤만 되면 배가 고픈지 제가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으면 로지가 찾아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엔 보여주지 않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저에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홀린 듯이 사료 몇 개를 바닥에 놓아주었는데, 로지는 얼른 먹고는 시크하게 가버립니 다. 그런 로지를 바라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로지처럼 사랑스러운 눈망 울을 한 우리들을 하느님께서 보시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를 반복하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로지의 간식 담당 집사가 되어버려서 저녁 8~9시쯤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저의 방문을 긁어댔습니다. '집사야, 얼른 간식을 내놓거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베네딕토 원장 신부님이 지나가시면서 '도대체 왜 로지는 살이 안 빠지지?'라는 혼잣말을 하셔서 속으로 뜨끔해서 이제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녁 간식은 그녀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3개월간 원장 신부님은 안식년을 다녀오셨습니다. 원장 신부님의 빈자리 덕분에 제가 3개월간 로지의 수석집사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덕분인지 티브이를 보고 있는 데 로지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 잠을 자는 겁니다.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냉랭했던 친구가 이제 내 품에 안겨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사랑의 표현이겠죠? 하느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당신 품에 안겨 편안히 쉰다면 더없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안식년이 끝나고 원장 신부님께서 돌아오신 다음 날, 로지는 신부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주었습니다. 그건 수도원 정원에서 잡아 온 작은 새 한 마리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새로 인해 수도원 복도는 깃털로 가득 찼고, 원장님은 기 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지는 기뻐하는(?) 원장님을 보면서 새의 마지막 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로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겠죠? 이럴 때는 고양이한테 칭찬해주 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들도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이 하느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사 때 드리는 감사송의 말씀처럼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겠습니다.

로지는 가끔 기도합니다. 수도원 정원에 놓인 성모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어 성모님을 쳐다봅니다. 역시 7년의 수도원 생활은 동물도 기도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새들도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우리 로지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수도원 처마 끝에 있는 새 둥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연약한 아기 새들을 사냥하려고 하죠. 잔 인한 포식자 로지는 기도하는 듯 보이지만 언제나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를 공격해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

지금 원고를 쓰는 중에도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로지는 하루에 15~6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낮에는 팔자 좋게 자고 밤에는 나가서 신나게 노는 걸 보면 풍류를 아는 듯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우리 집 고양이 로지는 '불임'입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들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잔인한 방법입니다. 우리와 살기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없는 고양이의 삶이 딱해 보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없지만 인간과 함께 사니 더 좋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이 행복을 만들어 주진 않 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하느님의 창 조에 동참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는 게 편안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즘은 우리를 현시대가 스스로 '불임'시키는 듯합니다.

우리 고양이 '로지'는 저에게도 이다한 신부님에게도 많은 위로를 줍니다. 비록 말은 안 통하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웃게만들어줍니다. 가끔 사냥을 해서 수도원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우리 수도원에는 없어선 안 될 사랑스러운 형제입니다. 때로는 형제보다 로지가 더 좋습니다. 많은 아버님들이 그러시더군요. 퇴근하면 강아지가 집에서 제일 먼저 반겨준다고요.

그동안 제 부족한 호주 생활기를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멜버른에 살 고 있는 저와 이다한 신부님 기억해주시고 늘 기도해주세요. 저도 주님 안에 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양평에서 눈 치우며

#### 성환석 요하킴

올해 1월 초, 원래대로라면 눈부신 태양이 하늘을 파랗게 물들이고 자연 만물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시간이었지만 유난히도 하늘색이 짙었다. 그렇게나 찬란하게 반짝이던 일광을 완전히 가로막은 기다란 검은 구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 이제부터 눈 뿌릴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형과 내 마음이 맞았는지 형님은 "오, 주님! 제발"이라며 자신의 굳은 신앙심을 과시했다. 거룩하게 성호를 긋고, 정성스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형의 모습은 마치 박해시대 때 모진 고문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증거했던 순교자들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떠올리게 하였다. 형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신 건가요?'라는 울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형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뉴스에서는 눈이 조금만 온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퍼붓는 양을 보니 아닌 것 같았다. '역시 일기예보와 전문가의 말은 신용하기 어렵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눈은 어느덧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다. 그 모습에 형이 넋을 잃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구 솟아올라 탈혼상태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런 형을 바라보며 가볍 게 미소지었다. "치우러 가요."

세상이 좋아져서 만들어진 최첨단 과학 장비, 제설기를 형에게 양보하고 나는 삽을 들었다. 우렁찬 제설기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포효하며 바람을 내뿜었다. 형은 그것을 등에 메고 길가로 향했다. 자동차와 사람들이 자주 지나 드는 길은 결코 눈이쌓이면 안 되는 곳이라 바로바로 눈을 치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제설기의 고함이 멀어지자 나도 움직였다. 내가 할 일은 형이 도로의 눈을 치울 동안 성당과 수도원 마당의 눈을 삽과 빗자루 로 처치하는 것이다. 마당에는 어느새 수사님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나와 계셨다.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수사님들 도 하던 일을 멈추시고 밖으로 나와 삽을 드신다.

"자, 모두 수고들 합시다." 너그럽고 자애로우시며 아름다우 신 원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눈 치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웅장한 나팔 같은 소리를 내뿜는 제설기와 눈을 치우시는 수사님들의 기합 소리, 시원하게 땅을 긁어 눈을 퍼내는 삽 소 리가 한데 모이자 하나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뒤섞여서 수사님들과 함께 눈을 치우고 있 자니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사는 지역은 전남 벌교 로 전국에서 폭설로 난리가 났어도 도도하고 새침하게 비를 뿌리는 아름다운 곳이다. 때문에 어릴 적에는 눈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눈만 보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혐오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던 내가 이토록 절실하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다니…. 항상 나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눈이란 참으로 아름답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물이라서 그런지 하늘 위에서 떨어져 내려 대지를 하얗게 물들인 모습을 보고 있자면 경외심까지 들 정도다. 하지만 이 눈이 사람이 사는 곳에 내려 쌓이고 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다치게 한다. 사람들은 눈길을 걸을 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없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바로바로 치워줘야 한다.

우리들의 악습과 죄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간이 하느님이 아닌 세상 것에 눈을 돌려 자신의 겉모습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된다면, 겉으로는 그가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며 대단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실상은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자신 주위를 덕지덕지 치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긴장하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 현대 사회에 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당연스 레 여겨지고 있다.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나다'와 같은 신경전, 이것의 연속 때문에 남들과의 만남과 관계를 지극히 피곤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의 탁류 속에서 오직 주님이라는 진리의 흐름만을 따라야 하는 수도자들은 얼마나 고독하게 자신들만의 눈과 얼음 을 치워야 하는 것일까? 그 괴로움을 감히 상상해 보았다. 자신 이 없어졌다. 자신이 없어지니 돌연 두려움이 엄습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잘 나아갈 수 있을까'하는 막연함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자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분명 눈을 조금밖에 치우지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다 치워져 버린 걸까'하 고 고개를 들어 보니 깔끔해진 수도원 마당에 모여 조곤조곤 담 소를 나누는 수사님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부드럽게 웃고 있 었다. 그때 알았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치우면 또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는 눈을 치우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멍청한 일이고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며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실제로도 걷고 있는 대다수의 수사님도 그렇고 이들을 묵묵히 바라봐 주는 신자들도 이 여정이 결코 멍청한 것도 아니고 우스운 일도 아니며 불합리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세상의 상식에서 눈이 멀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다. 오직 주님 때문에 멍청함이 지혜로움이 되었고 오직 주님 때문에 우스움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었으며 오직 주님 때문에 불합리함이 합리적이게 되었다. 그렇다.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함과 수고로움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이 여정은 단 한 순간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는 바로 즐겁다는 듯이 하하호호 웃고 계시는 수사님들 안에서, 시동을 끈 제설기를 매고 나에게로 도도하고 새침하게 걸어오는 형님 안에서, 더불어 우리주변의 이웃들 안에서 나에게 섭리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나를 지도해 주신다. 두려울 것은 없다.

내 고통을 함께 져 줄 형제가 있고 그 형제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영혼에 어떠 한 눈이 내리고 얼마나 쌓이고 얼어도 상관없다. 바로 내 곁에 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 신다 아멘!

## 몸의 내공(內功)

#### 김인주 레지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피부과 개원의로 일한지도 어느덧 32년이 되어 갑니다. 30년이라면 의사로서 내공이 쌓일 만한 세월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날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아예 진료실문 앞에 병아리 그림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병아리 의사의 실력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와 아름다운 '표정'에 있다는 것과 몸의 건강은 날씬한 체격이 아니라 바른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들에게 얼굴 표정근운동과 자세교정법을 가르쳐드리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당장 좋아 보이는 특별한 치료를 더 선호합니다. 신심 깊은 독자분들은 저의 32년 경험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적어봅니다.

의학도로 살아가면서 공부할수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에 놀라 몸이 떨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현미경으로 보는 세포와 조직의 아름다움은 어떤 예술작품에도 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인체의 각 부분은 천차만별의 세포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방대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위대한

질서의 흐름 안에 일제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 롭고 거룩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아담 이래 억, 경이 넘는 사람들의 유전자 배열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느님의 생각과 능력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을 하느님의 내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초 이래 쌓인 하느님 창조의 내공이 극치에 도달한 시점에 완성된 최신작 피조물이 아닐지요!

이렇게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우리의 몸은 살아가면서 변형되고 닳고 늙어갑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늙 었으니 할 수 없지, 체질이 원래 그런데 별수 있나, 사는 게 힘든 데 어쩌겠노…'라고 말하며 지친 표정과 틀어진 자세를 방치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을 되 찾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내공'입니다.

몸의 내공을 쌓는 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 1분만 마음의 눈을 몸에 두고 집중하면 됩니다. 이 1분이 저금하듯 쌓여서 몸을 만들어 갑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1분을 공들여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공 훈련법입니다.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세 가지 포인트—피부, 표정, 자세의 훈련법

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 1. 피부

피부는 단순히 우리 몸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피부의 표면에는 수많은 구멍과 샘들이 있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또 면역세포들이 나쁜물질의 침입을 막으려고 줄지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피부는최대의 호흡기관이자 배설기관이며 면역기관입니다.

보통 1분에 16번 정도 숨을 쉬면, 심장이 70번 정도 뛰어 산소 와 영양소를 피부로 보내줍니다. 좀 천천히 숨을 쉬어 1분 동안 6번~10번 정도 피부에 심호흡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부의 구멍이 다 열린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보내야 합니다. 호흡과 함께 피부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고 먼지를 털 듯 가볍게 두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피부 사랑으로 각질 제거나 사우나를 자주 하면 피부장벽이 벗겨지면서 가려움과 홍조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표정

이목구비가 다 예쁜데 미워 보이는 사람은 표정이 나쁜 사람입니다. 반면 평범한데도 아름다워 보이는 얼굴은 표정이 좋기때문입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얼굴의 200여 개 근육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심통한 표정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속 생각

이 금세 얼굴로 드러납니다.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좋은 표정은 눈 코 입이 아니라 양쪽 뺨의 근육들이 주로 담당합니다.

이 근육을 훈련하는 것을 '동안 운동'이라 합니다. '동안 운동' 은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따라 해 보실까요? 먼저 아래턱을 떨 어뜨리기 위해 입을 살짝만 벌립니다. 그리고 혀끝을 윗앞니의 뿌리와 잇몸이 연결된 부위에 붙입니다. 그리고 양쪽 입꼬리를 살짝 들어 웃어봅니다. 가능하면 입안공간을 크게 하여 소리 내 어 허! 헛! 웃으면 더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턱을 들지 말고 살짝 목 쪽으로 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목 뒤를 늘이는 느낌으로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면 목디스크가 예방될 뿐 아니라 얼굴이 리프팅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동안 운동'도 피부호흡과 같이할 수 있으니 1분에 피부와 표정훈련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자주 할수록 뺨 근육이 강화되어 팽팽한 젊은 얼굴이 됩니다. 한 달 후 주위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동안 운동이 부족한 것입니다.

#### 3. 자세

자세의 내공은 뼈의 '정렬'에서 옵니다. 자동차도 얼라인먼트 (alignement)가 가장 중요하듯 인체도 정렬이 깨지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 정렬의 중심은 엉치뼈(천골)입니다. 천골은 모든 골격과 근육의 중심입니다. 즉, 엉치뼈가 맨 먼저 바로

위치해야 그 위에 척추가 차례차례 얹히고 골반과 다리뼈도 바르게 연결됩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예를 들면 등을 구부리고 앉는 자세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천골이 비뚤어지면서 연결부위의 인대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거나 이완되어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꿈에서 하느님과 씨름을 하다가 얻어맞아 절룩거리게 된(창세 32,23) 뼈가 바로 천골이며 의학명도 Sacrum(신성한 뼈, 거룩한 뼈)이라 합니다. 에제키엘이 본 부활 환시 중 '뼈와 뼈들이 서로 다가가(에제 37,11)' — 말라 흩어진 뼈들이 모여 새로 살아 날 때도 천골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하필 이 뼈를 치셔서 야곱을 정신 차리게 한 것을 생각해보면 엉치뼈가 참으로 중요하니 잘 간수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열중쉬어 자세를 하면 두 손등이 모아져 허리 밑에 닿는 부분이 바로 천골입니다. 천골은 약 1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이 각도가 없어지며 뒤로 눕게 되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 쉬면서 손등으로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 천골이 앞으로 살짝 숙여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아랫배를 약간 당겨 주면 복근이 강화됩니다. 이 동작을 호흡에 따라 천천히 반복하면 척추 기립근이 강화되고 늘어진 골반저근도 회복됩니다. '천골호흡'도 1분에 6-10회 정도 피부, 동안훈련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가지 내공훈련을 1분 안에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나 미사 중 안거나 서 있을 때 천골호흡과 동안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호흡에 따라 미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굳게 땅을 디디고 머리는 하늘에 닿도록 몸을 최대한 늘립니다. 그리고 머리와 골반을 약간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목뒤와 요추 뒤, 무릎 뒤에는 자연스럽게 반월형의 굴곡이 생기는데 이 굴곡이야말로 외부의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창조주의 섬세한 배려이자 아름다움을 만드는 S-line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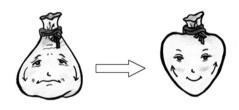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 사이의 간격을 늘이고 내 쉴 때 척추를 길게 늘이는 느낌으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턱과 골반을 앞으로 숙인 자세는 창조주에 대한 경외와 겸손을 나타냅니다. 얼굴에는 기쁨을 가득히 담고 전신의 피부로 말씀을 호흡하십시오. 감동적이고 감사로운 특별한 미사가 될 것입니다.

몸의 내공훈련은 호흡과 순환과 근육과 뼈의 정렬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든, 심지어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게다가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매 순간 해야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영성체 후성체가 나에게 머무는 시간은 내가 성체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만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내공도 생각하고 실천하는 만큼 쌓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닦으면 영성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영과 하나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 받았으며 영생을 누릴 '살아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의 내공을 쌓아 우리의 모상이신 하느님의 모습에 이 르시길 기도합니다.



### 사제 · 부제 서품식

일시: 2017년 12월 21일 (목) 오후 2시

장소: 대구대교구 월배 성당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저희 꼬베뚜알 프라치스코 수도 회 두 명의 형제가 사제품을 그리고 한 명의 형제가 부제품을 받 게 되었습니다. 사제와 부제로 부르심을 받은 세 명의 형제들이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복음적인 삶의 양식에 따라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봉사직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 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 꼰벤뚜알 프라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말리아노 콜베 관구 관구장 정진철 마르코와 형제들 올림

## 사제품





권정대 베드로 수사 김병훈 세례자요한 수사 고순현 마카리오 수사

#### 부제품









김병훈 세례자요한 수사

# 첫 미사 일정

2017년12월 22일(금) 오전 10:00	대구 영천성당	김병훈
2017년12월 24일(일) 오전 10:30	부산 기장성당	권정대
2017년12월 25일(월) 오전 10:30	부산 기장성당	김병훈, 권정대
오전 6:30 2017년12월 26일(화)	부산 일광 수도원	김병훈, 권정대
오후 7:30	대구 월배 성당	-0E, E04
2017년12월 27일 (수) 오전 6:00	대구 월배 수도원	김병훈, 권정대
2017년12월 28일 (목) 오전 10:30	인천 갈산동 성당	김병훈, 권정대
2017년12월 29일 (금) 오전 6:30	경기도 양평 수도원	김병훈, 권정대
2017년12월 30일 (토) 오전 6:30	서울 한남동 수도원	김병훈, 권정대
2018년 1월 3일(수)오전 10:30	부산 대연동 성당	김병훈, 권정대
2018년 1월 15일(월)오전 10:30	서울 한남동 수도원	김병훈

##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기념 지구봉사자 모임

성모기사회 지구봉사자 모임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한남동 수도원 피정집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설 100 주년 기념을 맞아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제주지구를 포함한 국내 모든 지구봉사자(미국, 호주제외)와 지도 수사 등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성모기사회의 토대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 회의 창설자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시시에 대한 강의 외에도 각지구 기사회 현황, 성모기사회 본부와 성모기사 잡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구 임원진들이 성모기사회원들의 바람을 전하는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모기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고민했습니다.

관구장 정진철(마르코)신부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를 통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서 주님 영광을 위해 드러나셔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성모기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는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다"고 격려 했습니다

성모님과 콜베 성인을 사랑하시는 회원 여러분!

모든 기사회 가족과 하나 되어 매일의 삶 안에서 겪는 고통과 희생을 성모기사회 발전을 위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해 주십시오, 더불어 은총의 칠락 묵주 기도를 봉헌해 주십시오.















##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기념 국제 대회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기념 국제 대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로마의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제대학 세라피쿰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설 100주년 기념을 맞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총장 Marco TASCA와 총참사위원들, 각 관구의 성모기사회 지도자 및 관구장, 양성가, 원장, 프란치스칸 학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성모기사회의 뿌리가 된 프란치스칸 영성 주제 발표 및 각 관구 성모기사회 현황이 제시되었고, 참가자들로 조를 나누어 발표 내용을 토의하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별 발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총장 Marco TASCA 신부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해 헌신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을 통해 프란치스칸 삶의 양식이 재확인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프란치스칸 수도자로서 주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모님과 콜베 성인을 사랑하시는 회원 여러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느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기념 대전지구 행사



성모기사회 창립 100 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에 대전지구 기사회원들 은 마재성지를 순례한 후, 콜베 마을에 들러 피정 시 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영 선 알렉산델 수도원장님 의 지도 아래 성모기사회 의 창립자인 콜베 성인을 본받아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다졌습니다.



이들의 각오가 변치 않 도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 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산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1-721-2273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서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sup>※</sup> 상황에 따라 후원회 미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계좌번호: 신한 140-002-932457 / 국민 026-01-0344-810

지 로:7620247

##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 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 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립니다.

###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재)천주교 꼰벤뚜알 성프란치스꼬수도회

신한은행: 140-009-830476

농 협:301-0116-9633-21

국민은행: 295401-01-183491



###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은 사무실(02-745-6134)로 전화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받습니다.
- 2) 매년 신청하시는 분은 작년에 신청하셨음을 말씀해주시고 성함, 연락처, 금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3) 재속프란치스코회 서울지구 보나벤투라, 비안네, 요셉, 콜베 형제회원은 단위형제회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4) 서울 한남동 수도원은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미사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 1) 부산 기장 성당에서 갖는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시간이 둘째 주 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 2) 부산 일광 삼덕 공소에서 가졌던 성모기사회 미사도 기장 성당으로 옮겼습니다.

### 이사했습니다

성모기사회 본부 사무실이 경기도 양평 수도원에서 서울 혜화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을 비롯해서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전화 02-745-6134 (사무실) 팩스 02-745-6135

###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2-745-6134) → 자동이체 신청

###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053-636-7427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크게 드 A A)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야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 주 │ 첫째 토요일 ├──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 기 - フ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П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sup>※</sup>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 지로번호

7529076

#### ● 자동◉Ⅰ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려요)

국민은행 (이태영) 059-21-0614-385 농 협 (이태영) 150017-51-045351 농 협 (천주교프란치스꼬수도회) 317-0007-3146-21 우 체 국 (천주교프란치스꼬수도회) 102566-01-005494

#### ● 해외에서 송금할때

Bank Name(은행명): Woori Bank Address(주소):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702-08-193616 Beneficiary(수취인): Park Young Cheol

####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 성모기시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7년 12월 통권 491호

발 행 인:정진철 편 집 인:구원모 편 집 장:윤지영

편집위원: 이상태, 이유리, 정영란, 한규희, 황재민

편 집: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사신 - 이신영 인 쇄:명조

발 행 처 : 재단법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 화: 02-745-6134 (사무실) 팩 스: 02-745-6135 홈페이지: ofmconv.or.kr

전자우편: mikorea@catholic.or.kr

"하느님을 낳으신 분, 거룩한 마리아이시여, 당신 안에는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였으며 지금도 가득하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3)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